제4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활동 지원

제2절 국제협력회의개최

제3절 아시아 ·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 · 운영

제4절 아세안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

제5절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공적개발원조, ODA)

제6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사업

제7절 2014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제8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제1절
유엔의 마약류 관련 활동 지원

1. 유엔의 마약류 관련 기구

가. 유엔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CND)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위원국은 53개국(임기 4년)이며 마약류 통제정책 결정의 핵심이 되는 심의기구임

▶ 매년 3~4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함
※ 한국은 1991. 5. 위원국으로 피선되었고, 1995. 5. 재선됨
※ 제37차 회의(1994. 4.)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되어 활동한 바 있음
※ 2012~2015년까지 위원국 자격 유지 예정임

나.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Enforcement Agencies : HONLEA)

▶ UN 마약위원회 산하 지역별 마약류 단속책임자 회의로, ① 아 · 태지역 ② 유럽지역 ③ 중동지역 ④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지역 ⑤ 아프리카지역 회의가 있음

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 UNODC)

▶ 1997. 11. 1.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와 국제범죄예방센터(CICP)를 통합해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위원회(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ODCCP)를 설치하여 마약류 및 조직범죄 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를 마련함

▶ 조직범죄 및 마약류 상호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 내 마약류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 · 운영함

▶ 2002. 10. 1. ODCCP를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로 개명함

라.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 1968년 설립된 유엔마약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임

▶ 마약류의 합법적인 제조 · 거래 및 판매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의료용 ·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 파악 및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적 경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고,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각국을 지원함

▶ 한편, 마약류의 불법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의 취약성을 적발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마약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함
※ 2000. 9. 4.~ 9. 6.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사무국장 Mr. Herbert Schaepe 방한
※ 2007.10.10.~10.12.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위원 Mr. Brian Watters 외 2명 방한

2. 유엔 주도 각종 국제협약

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및 1972년 개정의정서

▶ 이전까지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을 단일화한 협약임

▶ 아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및 코카인 등의 천연마약과 메사돈, 페치딘 등의 합성마약, 대마 등을 통제함

▶ 한국은 1964년 가입함(1964. 12. 발효, 개정의정서 1975. 8. 발효)

나.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 관리대상물질은 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물질로 각성제, 환각제, 항우울제 및 진통제 등이 있음

▶ 한국은 1978년 가입함(1978. 4. 발효)

다. 1988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

▶ 불법 마약류의 국제적 이동 및 불법 자금세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1988. 12. 19. 채택되어 1990. 11. 11. 발효됨

▶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제조에 사용되는 에페드린, 아세톤, 무수초산 등의 원료물질을 통제 · 관리함

▶ 주요내용

- 자금 세탁 처벌, 불법 수익 몰수, 범죄인인도, 통제배달 기법, 화학물질 통제, 해상 불법거래 방지, 국제우편물 규제 등임

▶ 한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1995. 12. 6. 공포 · 시행됨에 따라 국내법 정비를 완료했고, 1998. 12. 1. 협약가입을 위한 비준 준비절차를 완료한 후, 동년 12. 28. 협약가입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의 152번째 가입 당사국이 됨

3. 유엔의 마약류 퇴치 프로그램

가. 마약류 퇴치 10개년(UN Decade against Drug Abuse) 선포

▶ 1990. 2. 유엔에서 마약류 문제에 관한 특별총회를 개최, 1991~2000년을 마약류 퇴치 10개년으로 선포함

나. 세계 마약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제정

▶ 1987. 12. 유엔총회에서 매년 6. 26.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촉구함

※ 한국은 이와 관련 6월 한 달 동안 정부유관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마약류 퇴치 국민대회, 포스터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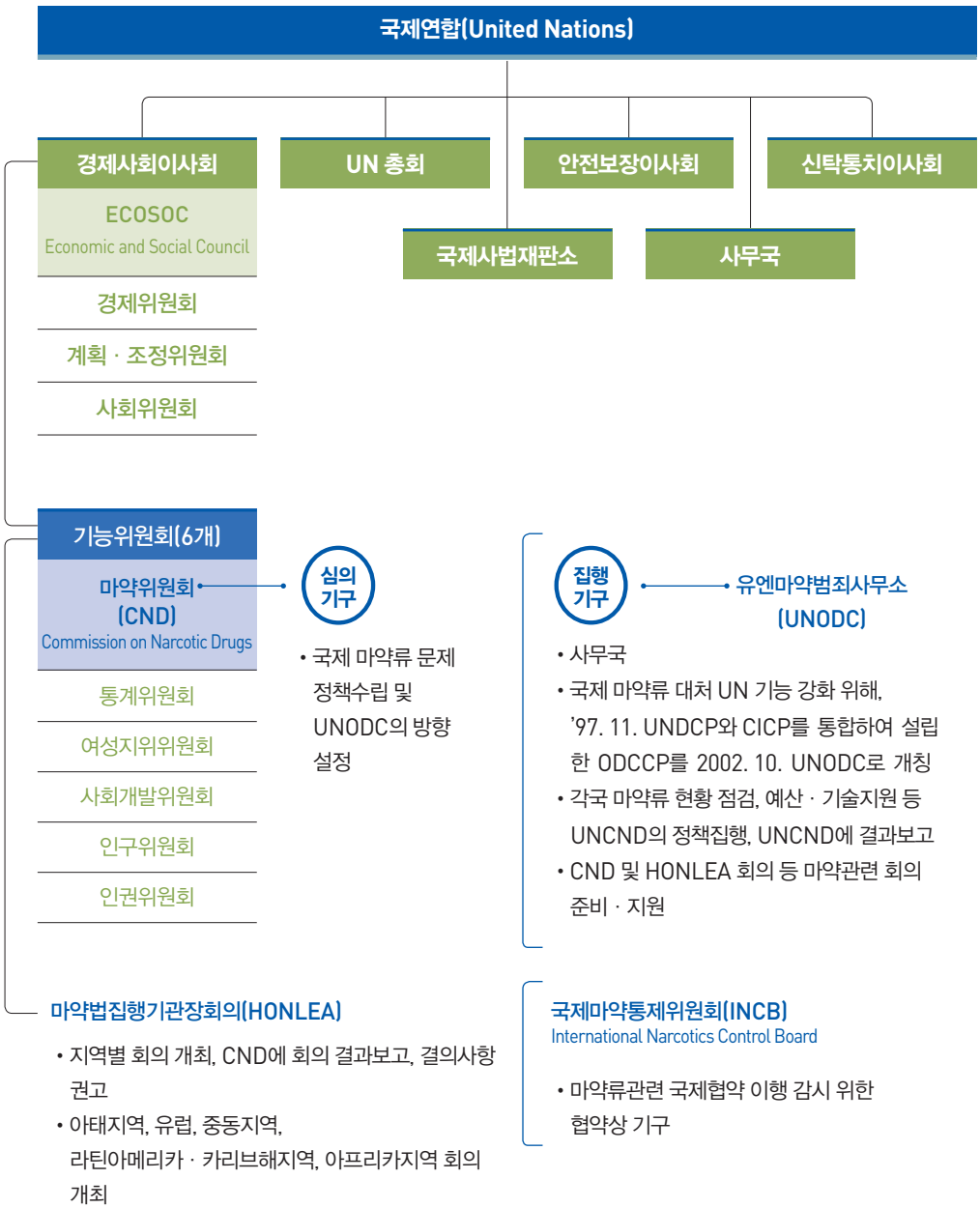
다. 유엔마약퇴치 친선대사(UNDCP Goodwill Ambassadors) 제도

▶ 1991. 5. 제34차 CND 회의에서 한국이 대사제도 창설을 제의함

▶ 1992. 6. 한국출신의 정트리오(정명화, 정경화, 정명훈)가 초대 대사로 임명되어 1992. 8. 서울에서 대사활동을 시작, 로마,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함

▶ 유엔마약퇴치 홍보대사로는 멕시코출신 미NBA 농구스타 Eduardo Najera, 일본 축구스타 Hidetoshi Nakata, 브라질출신 미NBA 농구스타 Nene Hilario,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미NBA 농구스타 Vlade Divac, 이란의 축구전설 Khodadad Azizi, 그리고 일본 대중가수 Tetsuya Komuro가 활동함

국제연합 마약류관련 기구표



제2절
국제협력회의개최

1.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창설 · 운영

▶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는 1989년 4월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 마약관계관이 참석한 첫 회의 이후 해마다 분기별로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개최하고 있음

▶ 2014년도 제24차 확대회의는 2014. 10. 1. ~ 3.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아시아 · 태평양 및 유럽 지역 24개국과 UNODC, 인터폴 등 5개 국제기구 마약관계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마약거래 및 신종 마약류 환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

제24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 분기별 마약류국제협력회의는 2014년 4/4분기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한 외국대사관 마약관계관은 물론 경찰청,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내 유관기관의 마약관계관 등 약 40여 명이 각 참석한 가운데 국제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함

제3절 아시아 ·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 · 운영

1. 아시아 · 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은 대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보공유 · 대응,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간 국제협력체로서 현재 10개국[1] 이 회원으로 가입됨

〈APICC 로고〉

※ 로고 안의 지구 모형은 아시아 · 태평양 국가들을 표시
지구 뒤에 있는 문양은 방패이며,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방패의 색깔은 APICC 회원국 상호 간에 소속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회원국 국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섯 가지 색을 삽입함

1]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신설배경

▶ 초국가범죄(Transnational Crime)인 마약류 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

▶ 지난 20여 년간 대검찰청이 주관하여 개최한 마약퇴치국제회의(ADLOMICO)와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ASEAN Project)[2] 등 국제협력 분야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회원국 간 협력체 신설에 동의

3. 아시아 · 태평양 마약정보조정센터 출범식 · 제1차 정기총회

▶ 2012년 9월 7일, 대검찰청 마약과 內 APICC 사무국에서 6개 회원국(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주한 외교사절단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약청 등 국내유관기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PICC 출범식을 개최함

▶ 2012년 9월 11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원국 마약 관련 고위 관계자들이(필리핀 마약청장, 캄보디아 · 브루나이 마약청 부청장 등) 참석한 가운데 회원국 간 정보공유를 위한 웹사이트 보안성 향상 방안, 회원국 간 공조수사 방식 표준화 및 실무자간 워크숍 개최 추진 등을 논의함

▶ 모든 참가국들이 APICC의 출범을 축하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하였으며, 한국 검찰의 선도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마약청정국인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2] 제4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참조

제3절
아시아 · 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창설 · 운영

APICC 출범식

제1차 APICC 정기총회

4. APICC 사무국 파견근무

▶ APICC 사무국은 회원국간 마약류 범죄정보 수집 및 마약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공조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APICC 지원사업을 수행할 파견근무자 1명을 매년 회원국으로부터 추천 · 선정함

▶ 2012년 8월, 제1회 파견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명의 파견관이 APICC 사무국에서 5개월간 상주 근무하며 위 업무를 수행함

- 2012 : Mr. APIKIT CH. ROJPRASER, 태국 마약청
- 2013 : Mr. SHERWIN HERBERT M. MANUEL, 필리핀 마약청
- 2014 : Mr. KAO BOUMONY, 캄보디아 마약단속국
- 2015 : Mr. NGUYEN HOAI LINH, 베트남 공안부 경찰총국 마약상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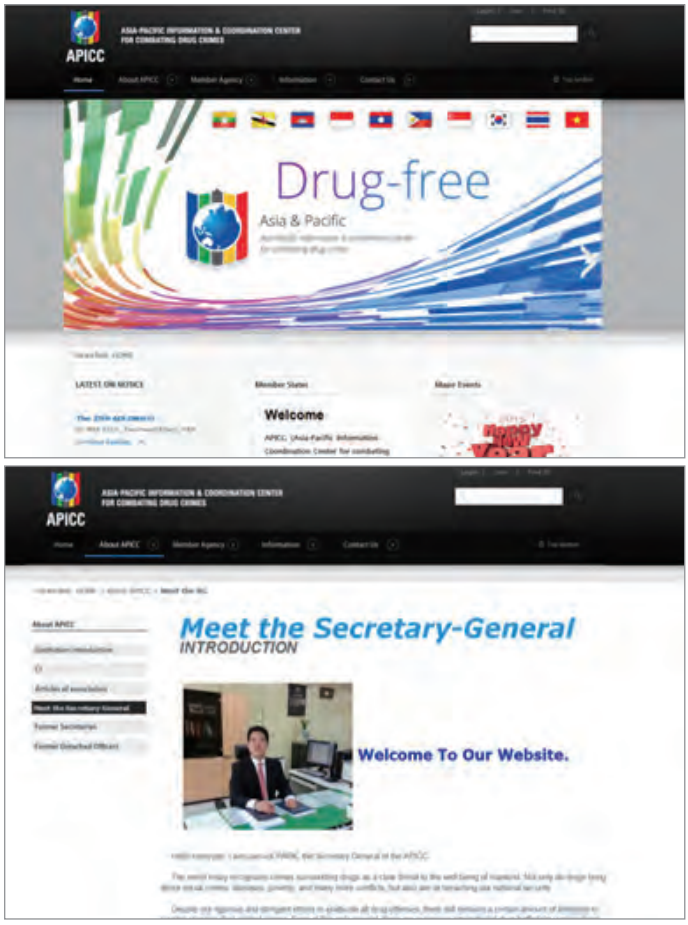
회원국 파견관의 APICC 사무국 內 업무 장면

5. APICC 웹사이트 개설 · 운영

▶ 회원국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형식적인 공조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APICC 전용 웹사이트(www.apicc.info)를 개설함

▶ 회원국별로 웹사이트 책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마약관련 최신 자료 · 각국 법령 · 공조 수사 사례 등이 게시되어 있음

APICC 홈페이지 사진



6. 제1차 APICC 실무자 워크숍 개최

▶ 2013. 4. 3. ~ 4. 4. 태국 방콕에서 APICC 실무자 워크숍를 개최함

▶ APICC 회원 9개국 및 미얀마 대표, UNODC 대표 등 총 34명이 참석하여 회원국간 실질적인 공조수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함

APICC 실무자 워크숍

7. 제2차 APICC 정기총회 개최

▶ 2014년 9월 30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 정기총회에서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총 11개국의 마약통제기관 고위급 관계관 35명이 참석함

▶ 미얀마가 APICC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MOU체결식을 하였으며, APICC 경과보고 · 운영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함

제2차 정기총회 단체사진 및 미얀마 APICC 가입 MOU체결식 장면

8. APICC 회원국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가. 메콩강 국경연락사무소(BLO) 마약통제 역량강화 프로젝트

▶ APICC 사무국은 2012. 11. 12. ~ 12. 14.(33일)까지 태국 · 라오스 · 캄보디아 국경연락사무소(BLO)에 장비지원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마약 등 초국가 범죄 단속역량 강화 지원 사업를 전개함

▶ 각국 BLO에 감시용 모터보트, 야간 투시경, 무전기 등 단속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우선 고려하여 지원함

▶ APICC 창설 후 첫 국제 지원 사업으로서 회원국들에게 APICC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메콩강 접경국가 BLO 간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 및 협력분위기 조성에 기여함

워크숍 개최 및 마약 단속 장비 인도식

나. 필리핀 민다나오지역 마약청(PDEA) 6개 지부 지원사업

▶ APICC 사무국은 2013. 7. 29. ~ 8. 31.(34일)까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마약청 6개 지부에 장비를 지원하고 워크숍을 개최함

▶ 각 지부별 장비수요 파악하여 수사 차량, 모터 싸이클, 컴퓨터, 무전기, 야간 투시경 등 필요 단속 장비를 지원하여 민다나오지역 마약 통제 역량 강화에 기여함

▶ 민다나오 지역 마약청 6개 지부 마약수사관 70여명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신 수사기법 공유 및 팀워크 강화에 기여함

워크숍 개최 및 마약 단속 장비 인도식

※ APICC 사무국은 지원대상국 마약통제 능력을 고려, 수요자 만족 극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마약류 생산 국가에 대한 국제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임

다. 필리핀 비사얀 제도 마약청(PDEA) 4개 지부 지원사업

▶ APICC 사무국은 2014. 6. 2. ~ 7. 3.(33일)까지 필리핀 비사얀 제도 마약청 4개 지부에 수사 장비를 지원하고, 현지 마약수사관 교육 · 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 지부별 실태에 따른 장비수요를 파악하여 수사 차량, 모터 싸이클, 컴퓨터, 무전기 등 맞춤형 수사장비를 지원함[3]

▶ 위 각 지부에서 참가한 마약수사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이틀간 개최된 워크숍에서 APICC 국제협력 활동 소개 및 PDEA 교육원 교관, 지방 판사, 검사를 초청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및 「최신 수사기법」 등 강의함

워크숍 개최 및 마약 단속 장비 인도식

3] 2013. 11. 필리핀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인 타클로반 지부를 집중 지원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직무교육 기회가 적었던 필리핀 중부지역 PDEA 직원들에게 최신 수사기법을 전수함

9. 국제 공조 수사 및 국제협력

▶ 국제기구성격의 국가간 협력체인 APICC은 회원국 간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공조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바 APICC 사무국에는 회원국 마약관계관이 상주, '마약정보분석팀'을 가동하여 상시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공동방어체제 구축하여 회원국 간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공유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국제공조 수사가 가능함

※ 구체적 수사공조 사례는 '제4장 제8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참조

해외 도피 마약사범 체포 및 신병인수 장면

10. APICC 창설 의의 및 기대효과

▶ 회원국 전용 홈페이지 및 회원국 파견 직원의 합동근무를 통한 실질적 수사공조체제를 실현함

▶ 기존 ADLOMICO,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다져 온 국제협력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네트워크와 국제협력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APICC 사무국에 국제 지원사업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원국 내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킴

제4절
아세안마약퇴치지원사업수행

1. 아세안 프로젝트

▶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 회원국 전원의 승인을 받아 아세안 사무국에 유보되어 있는 한 · 아세안 협력기금을 이용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마약퇴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8년 베트남 · 캄보디아, 2009년 필리핀, 2010년 인도네시아, 2012년 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2013년 미얀마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음

아세안 프로젝트 지원지역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태국 등 10개국, 인구 5억8천만 명, GDP 7,000억 달러

2. 추진 배경

가. 국내 마약류 사범 동향 변화

▶ 그동안 마약류 사범 퇴치전략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 밀조조직은 거의 궤멸되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마약거래 조직은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국제거래의 경유지로 활용하거나 한국인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마약의 간접적 공급국가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수사시스템은 종전의 투약자 진술을 기초로 한 국내 상선추적수사 기법에만 주로 의지함으로써 국제거래 조직에 대한 근본적 척결에 한계를 보여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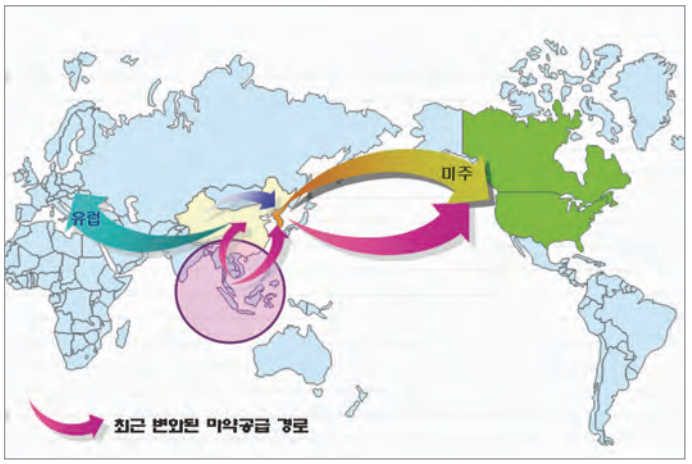
▶ 위와 같은 마약류 사범 동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약생산 · 공급지의 정보를 취득하여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거래 조직의 배후를 척결함으로써 국제거래 조직이 한국을 마약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

나. 국제 주종 마약류 생산 · 소비 동향 및 공급경로 변화

▶ 주종 마약류: 아편, 헤로인 ⇨ 필로폰

▶ 마약류 공급경로: 중국 – 한국 – 미주 · 유럽 ⇨ 동남아 – 한 · 중 – 미주 · 유럽

최근 마약류 공급경로 변화



▶ 그동안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유엔과 각국의 협조 하에 헤로인 원료 물질인 양귀비 재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양귀비를 커피 등으로 대체하는 대체작물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음

▶ 이에 따라 국제 마약거래 조직은 2003년 이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아편 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작은 공간에서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필로폰을 대체 마약물질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음

▶ 또한 그동안 필로폰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던 중국에서 최근 필로폰 밀조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자 2004년 이후 중국 내 필로폰 제조책들이 비교적 필로폰 단속 역량이 미약한 라오스, 미얀마, 태국 국경부근,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로 생산 및 공급 근거지를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 향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필로폰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한층 농후하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긴요함

3. 2007년 라오스

가. 추진경위

▶ 2005. 6. ASEAN+3 SOMTC+3(초국가범죄 관련 고위직 회담)에서 ASEAN 사무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마약통제지원사업 참여 요청을 받음

▶ 2006. 8. ASEAN+3 SOMTC+3, 마약고위관계관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 및 아세안 사무국 관계관에게 한 · ASEAN 마약통제지원사업 시범운영(안) 제시하여 참석자 전원 동의함

▶ 2007. 1. 아세안 사무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얻어, 2007. 3. 대검찰청 마약과에 한 · 아세안 마약통제지원사업 태스크포스(T/F) 설치, 운영함

나. 사업 목적

▶ 마약통제시스템이 취약한 라오스 정부에 대해 마약통제기법 공유 및 장비지원을 통해 마약의 공급, 소비를 억제코자 함

▶ 마약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다. 추진 실적

1) LOICOG[4] 개소식 및 마약퇴치 지원장비 인도식

▶ 2007. 4. 25. ~ 4 .26.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라오스 마약통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주 라오스 한국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라오스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라오스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OICOG) 개소식 및 지원장비 인도식(제1차[5]) 개최함

LOICOG 개소식 장면 및 현지 언론 기사

HOME Vientiane Times

Laos, Korea cooperate on drug control

장비인도식 장면 및 현지 언론 기사

April 26, 2007 PHOTO

4]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

5] 제2차 마약퇴치 지원장비 인도(2007. 8. 7.), 제3차 마약퇴치 지원장비 인도(2007. 11. 8.)

2) 한국 마약관계관 라오스 방문, 마약퇴치 캠페인 참가

▶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한국 마약관계관은 2007. 4. 26, 10. 23. 2회에 걸쳐 라오스 비엔티안, 루앙프라방을 방문하여 LOICOG과 LCDC가 공동으로 개최한 마약퇴치 캠페인에 참가하여 "마약의 폐해 및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주제로 강연함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3) 라오스 마약통제관 방한 및 ADLOMICO 참가

▶ 2007. 6. 9. ~ 6. 17. 라오스 마약통제위원회(LCDC) 위원장,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 마약통제관 5명 한국 방문하여 검찰총장 면담, 아리랑 TV 출연(한국-라오스 마약퇴치 국제협력 홍보),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가, 대검 마약과 방문, 마약 감식실 견학, 선진 산업단지 시찰 등을 통해 한국의 마약통제기법을 체득함

아리랑 TV 출연 장면

대검찰청 방문

4) LOICOG, 라오스 관련 주요 지역간 국제회의 참가

▶ 2007. 7. 17. ~ 7. 20. 라오스 우돔싸이에서 라오스-중국간 마약통제 양자회담 참가, 7. 25. ~ 7. 27. 라오스 사바나켓에서 라오스-태국간 마약통제 양자회담 참가, 2007. 8. 23. 베트남 하노이에서 SOMTC+3 마약고위관계관 회의 참가함

▶ 라오스 국경 지역간 국제 마약회의(Regional Meeting)에 참가하여 지역간 마약공급현황 및 마약통제정책에 대한 현장정보를 공유함

지역간 국제회의 참가 사진

4. 2008년 베트남, 캄보디아

4-1. 베트남 마약통제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마약통제시스템이 취약한 베트남의 마약통제기관과 마약통제기법 공유 및 마약통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마약의 공급,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함

▶ 마약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강화함

나. 추진실적

1) 마약통제지식 공유

▶ 2008. 2. 20. 베트남 하노이에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OICOG[6]) 설치, 마약수사관 2명 파견함

▶ 한국의 마약류관계 법령 소개 및 영문 법령 전달

- 2008. 3. 4. 베트남은 마약류관련 법령 개정 중이며 법령 내용 및 처벌의 수위에 대한 자료 요구에 따라, 한국의 마약류관계법령(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을 전달함

6]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 "7th ACCORD Task Force Meeting" 참석

- 2008. 7. 8. ~ 7. 11.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한 "7th ACCORD Task Force Meeting"에 참석하여 아세안사무국, UNODC 마약관계관, 아세안회원국 대표단과 정보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함

▶ 미국 마약청,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베트남 지부 주관 전술훈련 과정

- 2008. 7. 21. 베트남 하노이 소재 소방방재대학교에서 열린 마약수사전술훈련에 참석하여 베트남 경찰, 해경, 국경수비대, 세관 수사관들과 정보 교류함

▶ 대검 마약과 주관, 제1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가

- 2008. 9. 24. ~ 9. 26.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베트남 경찰 부국장, 마약단속국장, 국제협력과장이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마약류범죄 실태 및 동향 파악, 회원국 간 국제협력 강화 기회 마련함

2) 마약통제 장비지원

▶ 장거리 출장용 SUV 차량 1대, 미니버스 1대와 컴퓨터 28대

3) 마약퇴치 캠페인 지속전개

▶ 12회에 걸쳐 마약취약지역 약 7,500명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 마약 관련 법령,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 홍보

▶ 한국의 마약류 퇴치 현황 설명

▶ 홍보책자, 퀴즈 풀이, 마약남용의 폐해를 다룬 공연 개최 등

4) 양국간 우호증진

▶ 베트남 공안부 경찰총국 방문

- 2008. 6. 26, 10. 16.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공안부 경찰총국 방문하여 베트남의 마약단속 현황 및 사법제도에 대하여 견학하고 공조수사 방안 논의함

▶ 검찰총장 후원 물품 전달

- 2008. 6. 27. 호치민 니쑤안 치료 · 재활센터 방문하여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후원물품 전달함(대형 TV, 축구공, 배드민턴 용품 등)

4-2. 캄보디아 마약통제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마약통제시스템이 취약한 캄보디아, 베트남의 마약통제기관과 마약통제기법 공유, 마약통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마약의 공급,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함

▶ 마약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강화함

▶ 캄보디아 현지 마약통제관의 교육 및 국제협력 기회의 결여로 인한 전문 인력 부족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접하고 있는 국경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교통 · 통신 장비의 부족 등으로 마약통제 역량이 미약한 바 이에 대한 역량 강화가 목적임[7]

나. 추진실적

1) 마약통제지식 공유

▶ 2008. 2. 18. 캄보디아 프놈펜에 마약퇴치 국제협력 연락사무소(LOICOG[8]) 설치, 마약수사관 2명 파견함

▶ LOICOG 개소식 및 사업발대식 개최

- 2008. 4. 25.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현지사무소 개소식 및 사업발대식에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마약단속위원회 사무국장,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 국제협력단 캄보디아 사무소장을 초청,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이 참석하여 사업 수행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지원 의사 확인함

7] 2008. 4. 23. ~ 4. 24. 캄보디아 현지 사업 수행팀은 유엔범죄사무소 아 · 태지부와 동행하여 캄보디아 북부지역을 방문, 마약불법유통 경로 및 국경 수비 상황 파악

8] Liaison Offi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Golden triangle region

▶ 캄-태 양국 마약관계관을 위한 훈련과정 개최 지원 및 참가

- 2008. 8. 19. ~ 8. 22.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캄-태 양국 마약관계관을 위한 훈련과정에 캄보디아 대표단의 참석을 지원하고 위 과정에 참석하여 캄-태 양국의 마약통제 현황 및 양국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하고 한국의 마약정책을 소개함

▶ ASEAN + 3 마약관계관 실무자 회의 참석

- 2008. 8. 26. ~ 8. 28.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마약관계관 실무자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캄보디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소개 및 ASEAN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함

▶ 대검 마약과 주관, 제18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가

- 2008. 9. 24. ~ 9. 26. 부산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캄보디아 마약통제위원회 사무국장, 국제협력과장이 참가하여 세계 각국의 마약류범죄 실태 및 동향 파악, 회원국간 국제협력 강화 기회 마련함

2) 마약통제 장비지원

▶ 캄보디아 마약통제위원회에 물품들을 지원, 마약통제위원회는 다시 지방 정부 및 치료재활센터, 학교 등에 배분함

3) 마약퇴치 캠페인 지속전개

▶ 총 7회에 걸쳐 마약취약지역 약 16,000명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 마약 관련 법령, 처벌 기준, 실제 사례 등 홍보

▶ 한국의 마약류 퇴치 현황 설명

▶ 각종 기념품(티셔츠, 모자, 홍보용 CD, 홍보책자 등) 배포

4) 양국간 우호증진

▶ 지역 캠페인 지원

- 2008. 10. 13. ~ 10. 15. 대검찰청 마약과장 외 2명은 캄보디아 캄뽕짬 지역에 출장하여 위 지역에서 개최한 캠페인의 개최를 지원하고 캄보디아 마약통제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업 평가식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함

▶ 마약 및 조직범죄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8. 11. 25. ~ 11. 28.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마약통제위원회 부위원장, 마약통제위원회 사무국장 등 캄보디아 대표단 7명 방한함

- 2008. 11. 26. 대검찰청 방문, 검찰총장 면담, 한국 대검찰청-캄보디아 마약통제위원회간 마약 및 조직범죄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함

5. 2009년 필리핀

가. 사업목적

▶ 필리핀의 마약류통제기관과 마약류통제기법 공유 및 마약통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마약의 공급,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함

▶ 마약류 생산 및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강화함

나. 추진실적

1) 현지사무소 개소식 및 지원 물품 인도식

▶ 2009. 4. 22.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한국대사,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필리핀 경찰청 차장, 필리핀 중앙수사국 부국장, 관세청장, 이민국장, 한인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원물품을 인도함

2) 마약류퇴치 캠페인 공동 개최

▶ 2009. 4. 23. 필리핀 엥겔레스시 홀리앤젤 대학교 강당에서 대검 마약 · 조직범죄부장,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앵겔레스 시장, 홀리앤젤 대학교 총장, 경찰서장, 지방검사, 학생, 시민, 관계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개최함

▶ 동 행사에서 대검 마약 · 조직범죄부장은 “마약류의 폐해 및 양국간 협력증진”을 주제로 연설하였으며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및 엥겔레스 시장 그리고 대학총장이 축사 낭독함

3) 필리핀 마약치료재활센터 내 도서실 개관

▶ 2009. 4. 22. 필리핀 마약퇴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부장의 필리핀 방문시, 치료재활센터 내 도서실 개관 지원 의사를 표명함

▶ 2009. 5. 필리핀 한인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활센터 내 일부 수용실을 도서실로 개조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09. 6. 8. 도서실 개관함

▶ 약 20평 면적에 500여권의 도서, 컴퓨터 5대, TV 1대, DVD 플레이어 1대, 에어컨 1대, 책상 2개, 의자 15개, 책상 3개 비치함

▶ 도서실은 재활원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독서 및 컴퓨터 교육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방문하여 재활원생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4)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 한국초청 교육훈련

▶ 마약류퇴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마약단속청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 교육훈련을 통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전수함

▶ 2009. 6. 1. ~ 7. 3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마약감식실에서 필리핀 마약단속청 소속 마약분석관 2명에게 성분감식, 생체시료감식, 마약지문감식 등의 전문 기술 교육을 전수함

▶ 2009. 8. 1. ~ 9. 3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필리핀 마약단속청 소속 마약수사관 2명에게 정보수집 분석, 피의자 체포, 미행 기법, 피의자 신문, 통제배달 등의 수사기법을 교육함

조선일보 제27522호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소속 마약분석관 엔 도밍고(사진 왼쪽)씨와 자넷 신티마고씨. 지난 1일부터 대검찰청에서 마약감식 기법을 배우고 있는 이들은 "한국의 감식 기법을 배워 필리핀의 마약 퇴치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마약감식기법 배우러 왔어요"

필리핀 女마약분석관 2명

"필리핀에선 TV만 켜면 마약범죄 뉴스가 나와요. 한국의 감식기법을 배워서 필리핀의 마약퇴치에 꼭 기여하고 싶어요."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각종 실험도구와 마약분석기가 가득 찬 감식실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필리핀 젊은이 2명이 양귀비·대마·MDMA(일명 엑스터시)의 시약(試藥)을 분석기에 넣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1일부터 대검에서 마약감식기법을 배우고 있는 필리핀 마약단속청(PDEA) 소속 마약분석관 자넷 신티마고(26)씨와 엔 도밍고(22)씨. 1961년 대검 마약감식실이 생긴 이후 감식기법을 교육받는 첫 번째 외국인 분석관들이다.

둘은 명문인 국립 필리핀대 화학과를 ...준)을 따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재원(才媛)이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구 9000만 명 중 600만~1000만명이 마약 사용인구로 추정되는 동남아 최대 마약 국가다.

필리핀 정부는 마약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2002년 미국의 마약단속청(DEA)을 본떠 PDEA를 출범시켰고, 지난 2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PDEA에 합격한 이들 두 분석관이 한국에서 두 달간 교육받는 기회를 잡았다고 한다.

PDEA가 마약 단속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지만 감식수준은 아직 뒤떨어진다. 기본적인 마약감식장비인 가스크로 질량분석기만 3대 갖춰진 정도다. 우리나라에서 손쉽게 해내는 모발을 통한 마약검출기법은 아직 엄두를 못 낸다. 둘을 가르치는 [illegible] 사무관은 "우리가 미국·일본에서 배워 온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기술을 전

5) 필리핀 바기오시 마약류퇴치 캠페인 개최

▶ 2009. 7. 22. 필리핀 바기오 소재 시립고등학교에서 필리핀 마약단속청 부청장, 바기오시 부시장, 학교장, 마약단속청 지부장, 학생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개최하여 마약류퇴치 퍼포먼스 연출하고 영상물을 시청함

6) 대검찰청, 필리핀 마약류퇴치 국제협력분야 수상

▶ 2009. 9. 8. 대검찰청은 필리핀 마약단속청 창설 7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필리핀 마약류퇴치 국제협력분야 수상받음

▶ 포상분야는 마약류퇴치에 기여한 개인, NGO, 국제협력분야 등 5개 이며, 필리핀 정부는 대검찰청이 수행 중인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높이 평가하여 동 분야 수상자 선정함

* 2008년도 국제협력분야 수상자는 미국 마약청, 중국 금독국, 일본 JICA, 대만 경제문화부로 공동수상하였는바, 2009년은 대검찰청 단독 수상임

7)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등 3명, 대검찰청 마약과 주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가

▶ 2009. 9. 16. ~ 9. 18.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내 마약류 동향 파악 및 국제공조협력 강화함

▶ 동 회의에서 필리핀 마약청장은 회의체 발전을 위한 기념사 연설함

8) 필리핀 나보타스시 마약퇴치 캠페인 공동개최

▶ 2009. 10. 13. 필리핀 나보타스시 시립체육관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한국대사, 나보타스시장, 한인회장, 시민, 학생, 관계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진행함

▶ 대검찰청 마약과장은 "마약의 폐해 및 양국간 협력증진"을 주제로 기념사를 하였으며 이어 한국대사, 마약단속청장, 한인회장, 시장의 축사로 진행함

▶ 마약류 남용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마약류 남용 예방을 주제로한 동영상을 시청함

▶ 필리핀 마약단속청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 한국대사, 한인회장, 나보타스시장에게 감사패 수여함

9) 마약퇴치 지원사업 종료식

- 2009. 10. 14. 대검찰청 마약과장, 필리핀 마약단속청장, UNODC 아태지부 법률자문관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마약퇴치 지원사업 종료식 거행함

- 동 종료식에서는 마약퇴치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제 3차 지원물품 인도 및 마약감식실 개관함

6. 2010년 인도네시아

가. 사업목적

▶ 인도네시아의 마약류통제기관인 마약위원회(NNB, National Narcotics Board)와 마약류통제기법 공유 및 마약통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마약 공급 및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함

▶ 마약류 생산과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강화함

나. 추진실적

1) 마약류퇴치 캠페인 공동 개최

▶ 2010. 5. 22. 필리핀 접경지역인 미앙아스섬에서 인도네시아 NNB 위원장, 검찰연락관, 슬라웨시 북부 경찰사령관, 호주 경찰영사, 미국 FBI, DEA 관계자, 필리핀 대표단, 미앙아스 지역경찰 및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퇴치 캠페인을 개최함

▶ 동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NNB 위원장의 “마약류의 폐해 및 양국간 협력증진” 등에 관한 내용의 축사를 시작으로 마약퇴치 퍼포먼스, 대검찰청 캠페인 기념물품 전달 등 주요 행사내용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생중계를 실시함

2) 인도네시아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 교육

▶ 2010년도 한 · 인도네시아 마약퇴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NNB 소속 마약관계관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0. 5. 10. ~ 9. 11. 동안 2명씩 구성된 4개 팀을 초청, 각 2개월 간 대검찰청 과학수사 및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인도네시아 마약감시관을 대상으로 마약지문감식,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복구, 분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인천국제공항) 강력부 등에서 마약단속관을 대상으로 검찰 마약수사기법 및 공항만 마약검색시스템 견학 등 교육 실시함

3) 인도네시아 마약퇴치지원사업 발대식 및 현지사무소 개소식

▶ 2010. 6. 2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대검찰청 강력부장 및 마약과장, 한국대사, 인도네시아 NNB 위원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 대검찰청 강력부장, 한국 대사 및 NNB 위원장의 축사를 비롯하여 동 사업 경과 보고, 첨단 마약감식장비 지원 및 현지 연락사무소 현판식을 거행함

▶ 2010. 6. 2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인도네시아 부통령 주관의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캠페인에 참가하여 기념 티셔츠 등 지원물품을 전달함

4) 한 · 아세안 마약통제 역량강화 워크숍 공동개최

▶ 2010. 6. 28. ~ 29.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인도네시아 NNB와 공동으로 아세안 회원국 마약관계관 및 UNODC 아태지부 관계관 등 40여명이 참가한 한 · 아세안 마약통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국제 워크숍을 주관한 사례임

▶ 대검찰청 강력부장 및 마약과장, NNB 위원장, UNODC 및 아세안 마약관계관 40여명이 참가하여 한국 및 아세안의 마약통제시스템 소개, 한 ·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 평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신설 추진 소개, 회원국 의견 개진 및 동 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에 관한 일정 등을 논의함

5) 인도네시아 마약퇴치지원사업 종료식

▶ 2010. 11. 9. 인도네시아 NNB 강당에서 대검 마약과장, NNB 위원장, KOICA 소장 및 한국대사관, NNB 관계관 등 60명이 참석하여 마약퇴치 지원사업 종료식을 거행함

▶ 동 사업 종료식을 통해 마약퇴치 지원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마약감식장비 등 지원 물품을 인도하였으며, NNB는 향후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사업지원을 기대함

7. 2012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 사업목적

▶ 아세안 3개국(브루나이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마약통제기관들과의 마약통제기법 공유 및 마약 단속, 마약감식, 세관검색 등 마약통제와 관련된 각 분야별 국내초청교육을 통해 해당국의 마약 공급 및 소비 억제 능력 기반 마련함

▶ 마약류 생산과 거래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마약불법거래 및 생산조직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함

나. 추진실적

1) 아세안 3개국 순회 마약통제기법 공유 워크숍 개최

▶ 대검찰청은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출장단을 구성하여 2012. 4. 2. ~ 4. 9. 동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을 순회하며 각 국 마약단속기관(NCB, RMP, CNB) 관계자들과 『선진 마약통제시스템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함

▶ 동 워크숍에서 한국과 아세안 3개국 관계자들은 자국의 마약통제시스템, 마약감식시스템, 공항·항만 검색시스템, 마약류 예방·재활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토의하며 상호 정보를 공유함

한 · 싱가포르 워크숍 개최

한 · 말레이시아 워크숍 개최

한 · 브루나이 워크숍 개최내용이 현지 신문(1면)에 비중있게 게재

nei, Korea join hands to combat drug trad

7/April/2012;
Bandar, Seri Begawan
Brunei Darussalam.

Lee Young-Ki (L), director of Narcotics Division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and Directo
Control Bureau Abdul Aziz Othman exchanging gifts before the start of a workshop on strengthening
Picture: BT/Qunatul-Ain Bandial

culture and information."

"However, as such consequence, transnational crimes have also increased dramatically, especially in the field of drug-trafficking."

The closed-door workshop began with a briefing on both countries' drug control system and discussions on law enforcement, border control, preventive drug educa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nd a supervision scheme for drug offenders.

Last May, Brunei and Korea signed a Memoran standing to expand narcotics control.

Lee added that learn from the drug control system in Brunei.

2) 아세안 3개국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 교육

▶ 브루나이 마약청(BKN), 말레이시아 경찰청(RMP), 싱가포르 마약청(CNB) 소속 마약관계관 총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2. 7. 1. ~ 7. 7. 동안 대검찰청, 인천국제공항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을 습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

각 기관 견학 방문

3) 아세안 3개국 마약감식관 한국 초청 교육

▶ 브루나이 마약청(BKN), 말레이시아 경찰청(RMP), 싱가포르 마약청(CNB) 소속 마약감식관 총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검찰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2. 7. 1. ~ 7. 21. 동안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및 부산지검 마약감식실에서 3개국 마약감식관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성분감식, 마약류 지문감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술을 공유함

마약감식 기술전수

4) 아세안 3개국 세관실무자 한국 초청 교육

▶ 브루나이 마약청(BKN), 말레이시아 경찰청(RMP), 싱가포르 마약청(CNB) 소속 세관 실무자 총 3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세관의 선진 마약검색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2. 8. 26. ~ 9. 1. 동안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및 세관탐지견훈련센터, 인천국제공항 세관 등에서 3개국 세관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정보 수집기법, 여행자 동태관찰 및 인터뷰기법, 세관 과학검색장비 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국의 세관검색 시스템에 관한 정보 공유함

세관실무자 초청교육

8. 2013~2014년 미얀마

가. 사업 배경

▶ 미얀마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으로 2000년 이후 유엔의 대체작물 지원정책으로 양귀비 재배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제2의 양귀비 생산국가임

▶ 아울러, 국제마약조직은 비교적 단속역량이 미약한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부근 지역에서 아편재배를 통한 헤로인 생산 대신 화학적 공정을 거쳐 쉽게 제조할 수 있는 ATS를 대체 마약물질로 대량 생산하고 있는 추세임

▶ 대검찰청은 동남아 국가 중 최대의 양귀비 재배 국가이고 최근 ATS의 생산, 수요 및 수출이 증가하고 마약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여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마약통제기법으로 인해 효과적인 마약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를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함

▶ 동 사업을 통해 미얀마 마약통제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및 상호신뢰를 형성함으로써 2012년 창설된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에 미얀마가 동참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체 구축을 희망함

나. 사업 내용

1) 사업수행관 파견 및 사업명칭 확정

▶ 검찰마약수사관 2명을 미얀마 중앙마약통제위원회[9]에 파견하여 8개월간 현지에서 사업 수행(2013. 11. 18. ~ 2014. 7. 18)

사업로고

사업 명칭

Enhancing the Capacity of Drug Control in Myanmar (약칭: ECODC PROJECT)

9] **Central Committee for Drug Abuse Control**(CCDAC): 1975년도 미얀마 마약정책수립, 국제공조 등 목적으로 신설, 위원장은 내무부 장관이며 경찰청장이 사무국장 겸임

2) 사업 착수식 및 한-미얀마 마약통제 워크숍 개최

▶ 대검찰청은 미얀마 마약통제 위원회(CCDAC)와 공동으로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마약퇴치지원 사업착수식 및 한-미얀마 마약통제 워크숍[10] 개최함

▶ 사업착수식

• 2014. 4. 2. 09:30경 미얀마 네피도 소재 아마라 호텔에서 대검 마약과장, 미얀마 경찰청장 등 양국 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협약식 수행함

사업 착수식

10]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해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의 마약통제 유관기관(식약처,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 용인정신병원)이 참여한 한국대표단 구성

▶ 2014. 4. 2. 10:00경 미얀마 네피도 아마라 호텔에서 한국 대표단, CCDAC 사무국장 및 담당 과장 등 총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마약동향 및 APICC 소개, 미얀마의 마약통제 정책 소개, 한국의 임시마약류지정제도, 한국 마약원료물질 관리 정책 등을 소개함

한-미얀마 워크숍

3)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4. 1.경부터 6.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미얀마 6개 도시[11]('네피도'지역 '핀마나'시, '샨'주 '타운지'시, '양곤'지역 '양곤'시, '카친'주 '미치나'시, '사가인'지역 '칼레이'시, '만달레이'지역 '만달레이'시)에서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을 개최함

▶ 미얀마 전역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 선정으로 마약의 폐해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마약퇴치 홍보캠페인 개최 장면

11] 각 지역 공무원과 현지 학생 · 주민 등 6개 도시 총 2500명 이상이 참석

4) 마약감식장비 지원 및 선진 마약감식기법 전수

▶ 대검찰청은 CCDAC측에 마약감식장비를 지원하고, 한국의 선진 마약감식기법 전수를 위한 대검찰청 마약감식 전문가 출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지 수요 및 공식 요청을 통한 가장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마약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함

▶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검찰 법화학실(Forensic chemical laboratory)에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모발을 이용한 필로폰 분석방법 Ⅰ. Ⅱ(정량분석) 강의, 동일한 분석법을 설치한 분석 장비에 로딩하여 미얀마 감정관의 실무를 유도하고 유사한 결과 도출 시도함

마약감식지원 장비 및 전문가 출장교육 실시 장면

5) 미얀마 마약감식관 및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연수

▶ 2014. 4. 30. ~ 5. 29.까지 30일간 미얀마 마약감식관 2명을 한국으로 초청, 대검찰청 법화학실 집중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선진 마약감식 기법 전수함

▶ 2014. 5. 19. ~ 5. 29.까지 11일간 미얀마 마약관계관 4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식약처 등 한국의 마약관련 기관 방문 연수프로그램 등 해당 전문분야 교육훈련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 기법을 소개함

국내 초청연수 장면

6) 마약감식장비 기증 및 사업종료식 개최

▶ 2014. 7. 7. 09:00경 미얀마 양곤 마약감식실 및 마약박물관 강당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 및 양곤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감식장비 기증식 및 사업종료식을 개최함

▶ 미얀마 측은 동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미얀마 마약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명[12]하였고 향후 양국 간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함

마약감식장비 기증식 및 사업종료식 장면

12] 미얀마 정부는 동 사업 책임자인 대검찰청 마약과장과 현지 사업 수행관 2명에 대해 국가 훈장을 수여하였음

7) 미얀마 고위 마약관계관 APICC 정기총회 및 ADLOMICO 초청

▶ 2014. 9. 29. ~ 10. 3.까지 4일간 개최된 제2차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정기총회 및 제24차 국제마약퇴치협력회의(ADLOMICO)에 미얀마 고위 마약관계관을 한국에 초청하여 각 국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한국검찰이 주도하여 창설한 'APICC' 회원국 가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얀마 정부는 동사업을 계기로 가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본 APICC 정기총회에서 MOU 서명을 통해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

미얀마 APICC 회원가입 MOU 체결식 장면

제24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제5절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공적개발원조, ODA)

1. ODA[13]

▶ 대검찰청은 2007년도부터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수행[14]해오고 있는 바, 각 사업 당사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은 대검찰청의 지원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사업 재개를 요청하여 2010년부터 법무부 ODA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지원사업을 시작함

▶ 2010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2011년 라오스, 2012년 필리핀, 2013년 방글라데시, 2014년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각 국의 마약통제역량을 높였으며 지원 대상 지역을 동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확대함

2. 2010년 캄보디아 프로젝트

가. 사업배경

▶ 2008년 한국검찰(대검찰청)이 캄보디아 마약단속위원회(NACD, National Authority for Combating Drugs)와 마약퇴치 캠페인 공동개최 및 수사장비 지원 등 마약퇴치 지원사업(아세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체결된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공조 강화」 MOU 및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샤르 켕, NACD 위원장)의 동 사업 재개 요청함

13]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 개발 원조)

14] 아세안프로젝트(제4장 제4절) 참조

▶ 2010년도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0 NEEDS(New Enhancement to Encounter Drug Spreading)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나. 추진실적

1) 현지 사업 수행 및 캠페인 활동

▶ 2010. 5. 11.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Panha 대학에서 총장, 교직원 및 학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의 폐해 및 문제점 등에 관한 강연을 실시함

▶ 2010. 5. 24.~28. 'PATROL'(Partnership Against Transnational crime through Regional Organized Law-enforcement; UNODC 주도로 인도차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인신매매, 야생동물 남획 등 국제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목적으로 함)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캄보디아 국경지역 조사에 참관함

▶ 2010. 6. 1.~3. 캄보디아 Bantey Meanchey 주 청사 강당에서 NACD 상임위원장, 주지사, UNODC 등 관계자 약 200여명과 함께 캄보디아 마약전략회의에 참가하여 마약단속역량 강화, 예방정책 및 국제협력 등에 대한 주제별 토론에 참여, NEEDS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하고 현지방송에 출현, 대검찰청의 국제협력 사업과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함

2) 마약퇴치 캠페인 집중 전개

▶ 캄보디아 북동부 및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2008년 아세안 프로젝트와 달리 NEEDS 프로젝트는 Banteay Meanchey 주 및 Pursat 주 등 주로 북서부와 남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함

▶ 2010. 8. 3. ~ 8. 9. Banteay Meanchey 주(州), Batambang 주(州) 및 Pailin 주(州)를 순회하며 한국 검찰수사관 및 NACD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주 마약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 및 마약퇴치 국제협력활동, 양국의

최신 수사기법 등을 소개하고, 마약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마약퇴치 홍보 활동을 전개함

3) 캄보디아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 교육

▶ 캄보디아 NACD 소속 마약관계관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0. 5. 10. ~ 9. 11. 동안 2명씩 4개 팀을 편성, 2개월 간 대검찰청 과학수사 및 디지털 수사담당관실에서 디지털증거분석관(2명), 마약감식관(2명)을 대상으로 마약지문감식,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복구, 분석, 마약류 감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인천국제공항) 강력부 등에서 마약단속관(4명)을 대상으로 검찰 마약수사기법 및 공항만 마약검색시스템 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함

3. 2011년 라오스 프로젝트

가. 사업배경

▶ 2007년 한국검찰(대검찰청)이 수행한 라오스 마약퇴치지원사업(아세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라오스 마약통제위원회(LCDC, Lao national Commision for Drug Control and supervision) 위원장이 공식서한 및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동 사업 재개 요청함

▶ 2011년도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1 SDC (Strengthening Drug Control)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나. 추진실적

1) 현지 사업 수행 및 캠페인 · 워크숍 활동

▶ 2011. 6. 24.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탈루앙 광장에서 LCDC 위원장, 공안장관 및 시민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퇴치 홍보 활동을 실시함

▶ 2011. 9. 13. ~ 10. 4. Borikhamxay 주(州), Khammiane 주(州), Savannakhet 주(州) 및 Champasak 주(州) 등지를 순회하며 한국 검찰수사관 및 LCDC 직원 4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을 통해 주 마약단속 공무원 및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법제도 및 마약퇴치 국제협력활동 등을 소개하고, 마약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마약퇴치 홍보활동을 전개함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선진마약통제기법 지식전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한국의 마약통제기법, 국제협력동향, 마약전산시스템,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시스템 등을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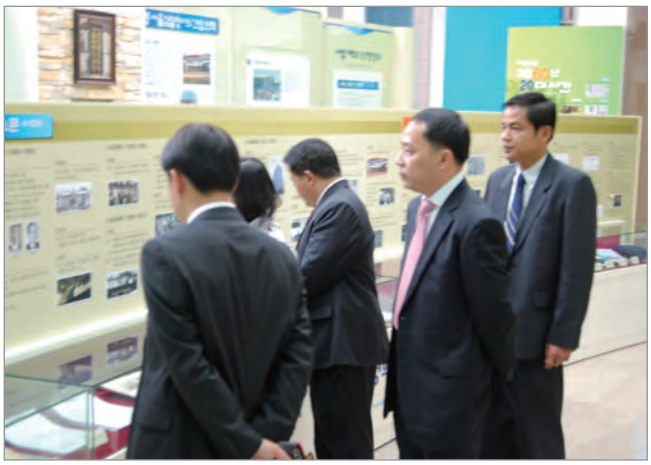
지식전수 워크숍

2) 라오스 마약관계관 한국 초청 교육

▶ 라오스 LCDC 소속 마약관계관 4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2011. 10. 26. ~ 11. 3. 동안 대검찰청, 인천세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견학하며 한국의 선진마약통제기법 습득함

라오스 마약관계관 초청 교육



3)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초청

▶ 2011. 5. 18. ~ 5. 20.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개최된 제21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라오스 LCDC 부위원장, 국제협력과장, 비엔티엔 치료재활센터장 등 라오스 고위급 마약관계관 3명을 초청하여 각 국의 마약류범죄 실태 및 동향 공유, 국제공조수사강화 등 협력방안 논의함

4) 사업종료식

▶ 2011. 11. 9. 라오스 마약통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검 마약과장, LCDC 위원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종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거행함

사업종료식 및 수사장비 지원

4. 2012년 필리핀 프로젝트

가. 사업 배경

▶ 2009년 대검찰청 마약과는 아세안 마약퇴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검찰마약수사관 2명을 필리핀으로 파견하여 8개월간 현지에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2012년도에도 대검찰청은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을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의 명칭을 '2012 SPO and PDEA (Strengthening Programs On Prevention of illicit Drugs through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and Activities)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사업을 수행함

나. 사업 내용

1)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2. 6.경부터 10.경까지 필리핀 Muntinlupa, Tarlac, Cebu, Baguio, Quezon 등지에서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 각 지역 시장 및 고문변호사, 학교장, PDEA 청장 및 각 부서장, 공무원, 교사, 학생, 지역 주민 등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함

▶ 캠페인 개최 결과Muntinlupa 등 총 5개 지역에서 연인원 3,150여명 이상의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마약의 폐해를 적극 인식시켜 마약퇴치 홍보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함

2)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012. 6. 20. 필리핀 마닐라 소재 두짓타니호텔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한국의 마약 통제 시스템과 APICC, 한국 검찰의 마약 감식시스템, 한국 검찰의 마약수사 정보시스템, 한국의 마약류사범 재활시스템 등을 필리핀 마약청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양국의 마약통제시스템 공유를 위한 토의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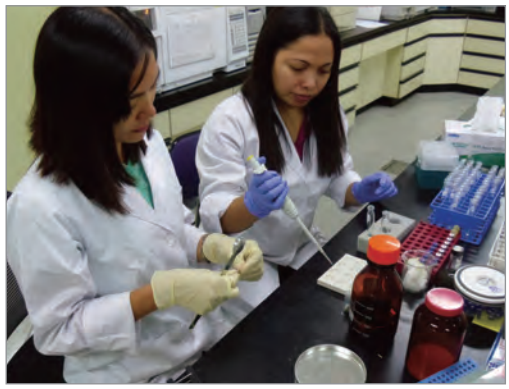
워크숍 개최

3) 필리핀 마약관계관 및 감식요원 초청 교육

▶ 2012. 7. 2. ~ 7. 6. 필리핀 마약관계관 4명을 한국으로 초청,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한국의 마약관련기관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및 관련정보를 공유함

▶ 2012. 9. 3. ~ 10. 31. 필리핀 마약감식관 2명을 한국으로 초청, 대검찰청 마약감식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수를 통하여 한국의 선진 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함

마약감식기법 전수



4) 필리핀 마약관계관 APICC 창립 총회 및 ADLOMICO 초청

▶ 2012. 9. 11.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APICC 창립총회에서는 필리핀 마약청장 등 회원국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 마약범죄 실태 및 동향, APICC 회원국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APICC 창립총회 참석

▶ 2012. 9. 12. ~ 14.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는 필리핀 마약청장, 정보수사과장,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가, 각국의 마약류 동향, 마약원료물질 통제방안, 국제공조수사 강화방안 등 논의함

제22차 아드로미코 참석

5) 수사장비 인도식 거행 및 사업종료식 개최

▶ 대검찰청은 필리핀 마약통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리핀 마약청에 컴퓨터, 수사차량, 비디오 감시장비, 휴대폰 분석장비, 컴퓨터 서버 등 3차에 걸쳐 수사장비를 지원하였고 2012. 10. 26. 필리핀 마약청에서 2012년도 필리핀 마약퇴치 국제협력사업 종료식과 더불어 수사장비 인도식을 거행함

▶ 필리핀 측은 한국대표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한국이 2009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필리핀 마약통제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준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함

사업종료식 및 수사장비 인도식

5. 2013년 방글라데시 프로젝트

가. 사업 배경

▶ 2011. 12. 20.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CPS 정책협의에서 방글라데시 정부(Department of Narcotics Control[15])로부터 마약퇴치지원 사업 요청함

▶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온 대검찰청의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동남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 저개발국가 지역으로 발전적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2013년도 대검찰청은 서남아시아 중 방글라데시를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 재개함

15] 전국 12개 국 · 공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기관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임

▶ 검찰마약수사관 2명을 방글라데시 마약청에 파견하여 6개월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함 (사업명칭: ASDC PROJECT[16])

사업 로그

슬로건

BE HEALTHY
BUILD A DRUG FREE COMMUNITY

나. 사업 내용

1)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3. 5.경부터 9.경까지 방글라데시 Dhaka, Jessore, Rajshahi, Chittagong 지역에서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 방글라데시 내무부 장관 및 차관, DNC 국장 및 소속 공무원, 경찰청장, NGO 단체장, 유관기관 공무원, 교사,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함

16] ASSISTANCE ON STRENGTHENING DRUG CONTROL IN BANGLADESH

제5절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공적개발원조, ODA)

▶ 방글라데시 수도인 Dhaka 및 주요지방도시 3개 지역에서 총 3,400여명 이상의 학생,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하고 지역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마약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마약퇴치 홍보활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마약퇴치 캠페인 주요 행사 장면

2)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방글라데시 마약단속국(DNC)에서 자국 내 마약통제기법의 실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대한민국 선진 마약통제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여, 2013. 9. 10. ~ 9. 11.(2일간) DNC 수사관 100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함

▶ 한국의 마약 통제시스템 및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소개, 한국 마약 감식시스템 및 마약수사 정보시스템 설명, 한국의 마약류 사범 재활시스템 소개, 인터넷 IP추적기법, 휴대전화 추적기법 강의 등 토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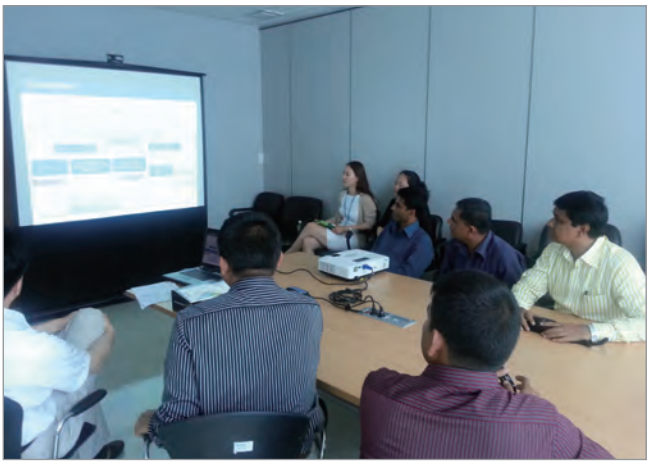
워크숍 개최

3) 방글라데시 마약관계관 및 감식요원 국내 초청교육

▶ 2013. 7. 1. ~ 7. 22. DNC 마약감정관 1명을 한국으로 초청, 대검찰청 법화학실 집중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선진 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함

▶ 2013. 7. 18. ~ 7. 22. DNC 마약관계관 5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양경찰청, 천안외국인교도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의 마약관련 기관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및 관련정보를 공유하였음

국내 초청교육



4) 방글라데시 고위급 마약관계관 ADLOMICO 초청

▶ 2013. 6. 26. ~ 6. 28.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3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방글라데시 내무부 차관, DNC 부국장, DNC 예방교육 및 연구간행과장이 참석함

▶ 31개 회원국 및 7개 국제기구에서 200여명이 넘는 고위급 마약관계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마약류범죄 동향 소개,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 방안 논의함

ADLOMICO 회의 참석

5) 마약단속 · 수사장비 지원

▶ 대검찰청은 방글라데시 마약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DNC에 수사차량,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3차에 걸쳐 수사장비를 지원함

▶ 방글라데시 현지 수요 조사 및 공식 요청 등으로 가장 현지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명함

장비 기증증서 서명 및 인도식 장면

6. 2014년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가. 사업 배경

▶ 2014년도 대검찰청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법무부로부터 ODA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 재개함

▶ 2007년도부터 추진해 온 대검찰청의 국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동 · 서남아시아 저개발국가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 ·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

▶ 검찰마약수사관 2명을 방글라데시 마약청에 파견하여 6개월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함

사업 명칭

COMBATING ILLICIT DRUG TRAFFICKING 2014
IN UZBEKISTAN

General Prosecutor's Office of Uzbekistan
&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Korea

검찰 PROSECUTION SERVICE

슬로건

NOT EVEN ONCE

나. 사업 내용

1) 타슈켄트(Tashkent, 수도) 마약퇴치 세미나

▶ 2014. 9. 1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제1차장검사 및 내무부 등 마약관련 유관기관 참석자 총 50여명 참석하여 양 기관의 마약퇴치 노력에 대한 사례 발표함

2) 히바(Xiva)지역 마약퇴치 캠페인

▶ 2014. 9. 11. ~ 13.동안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국제협력국 검사 등이 동행한 본 캠페인에서, 히바의 마문 아카데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회화 및 조각 등을 통해 마약퇴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번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마약에 대한 폐해를 더욱 알리는 계기가 됨

3) 테르미즈(Termiz) 마약퇴치 캠페인

▶ 2014. 9. 28. ~ 29.동안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수사국장 · 부국장이 동행한 본 캠페인은 테르미즈 제2고등학교에서 진행해 테르미즈 지역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폐해를 알리고 대한민국 대검찰청과 우즈벡 대검찰청의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제2고등학교 캠페인 종료 후 테르미즈 예술학교를 방문하여 지역 어린이들부터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 진행함

제5절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공적개발원조, ODA)

▶ 학교 방문을 마친 후 수르한다리야주(州) 검찰청을 방문하여 청사견학을 하고, 현지 사업수행관 조수한 수사관은 현지 검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대검찰청 및 마약퇴치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수르한다리야주(州) 검사장은 양국의 협력과 양기관의 발전을 기대하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테르미즈 지역은 전세계에서 마약문제가 가장 심각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은 물론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도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수르한다리야 지역민과 테르미즈 시민들에게 본 캠페인의 취지가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 믿는다며 감사를 표함

4) 우즈베키스탄 검사 및 마약감식관 국내 초청교육

▶ 2014. 11. 26. ~ 12. 5.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및 내무부 소속 감식센터 연구원 2명을 초청하여, 대검찰청 법화학실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선진 마약감식기법을 전수함

▶ 2014. 11. 26. ~ 12. 5. 우즈베키스탄 검사 6명을 초청하여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해양경찰청, 천안외국인교도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한국의 마약관련 기관 방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선진 마약통제기법 전수 및 관련정보를 공유하였음

5)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ADLOMICO 초청

▶ 2014. 10. 1. ~ 3.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3명이 참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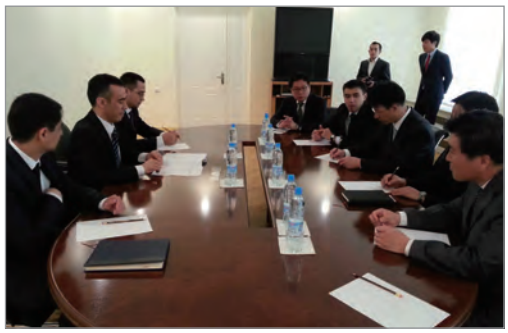
▶ 24개국 및 5개 국제기구에서 150여명이 넘는 고위급 마약관계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각국의 마약류범죄 동향 소개, 국제공조수사 강화 등 협력 방안 논의

ADLOMICO 회의 참석

6) 마약단속 · 수사장비 지원 및 사업종료식

▶ 대검찰청은 우즈베키스탄 마약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에 수사차량 2대 및 마약감식 장비 지원

▶ 2014. 10. 16.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소재 대검찰청 內 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1차장검사, 감찰국장, 국제법무국장 등 고위급 참석하여 지원 사업 협력 및 성공적 사업수행에 대한 상호 감사표명이 있었고 우즈벡 대검 1차장검사는 검찰총장님의 우즈벡 방문을 희망하면서 사업 수행경과 보고 및 국내초청연수 등에 대해 논의



▶ 2014. 10. 17.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소재 주검찰청 방문하여 양국간 마약단속 현황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 소개

▶ 2014. 10. 17.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소재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대강당에서 대검 마약과장, 수사관 2명, 사마르칸트 국립대학 총장, 교직원, 학생 80명 등 참석한 가운데 대검 마약과장, 『마약의 폐해 및 마약퇴치를 위한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주제로 강연, 한국의 마약통제시스템 및 국제협력 경과 등에 대한 질의응답

제6절
베트남 마약통제역량 강화사업

가. 사업배경

▶ 베트남은 세계 최대 헤로인 생산지인 골든트라이앵글(미얀마, 태국, 라오스) 인접지역으로, 매년 마약류가 대량 밀반입되어 마약류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함

▶ 2008년의 베트남 마약퇴치 지원사업(아세안 프로젝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검찰청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베트남 공안부에서 '마약류 통계시스템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마약통제역량강화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요청, 대검찰청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

나. 사업내용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검찰청의 마약수사관 및 전산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하여 베트남 공안부 및 전국 63개 성(省)에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구축 및 직원 국내 초청교육 등 실시함

1)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Integrated Drug Information System)

▶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마약청정국가인 대한민국의 검찰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모델로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개발 및 구축함

▶ 마약사범 인적사항, 조직계보, 범죄수법 등 전국에서 수집된 마약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전국적인 공조수사 진행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분석 ·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마약정책수립 가능함

※ 대검찰청은 1990년에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마약퇴치에 성공, UN, ASEAN 등 국제사회로부터 마약퇴치성공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다. 추진실적

1) 전문가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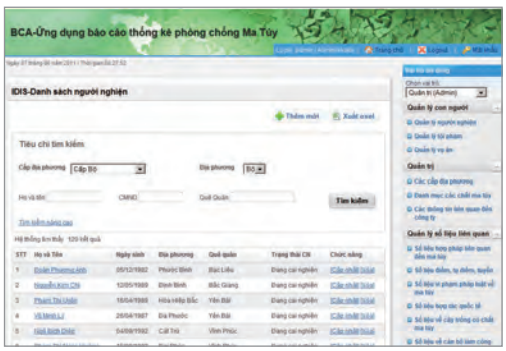
▶ 사업관리자(마약통제 전문가) 및 전산전문가를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사업 수행, 관리 및 기술전수함

2) 기자재 지원

▶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 및 사무용 기자재 지원과 마약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원기관 홈페이지 개발을 통하여 마약류 통제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창구를 마련함

서버 등 전산 기자재 설치

마약통계프로그램 개발



3) 초청 연수

▶ 베트남 마약통제 실무자급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시스템 운영, 장애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산전문교육을 실시함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담당자 국내 초청 교육

4) 현지사용자 교육

▶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베트남 공안부 경찰총국 마약통제 상임위원회(SODC), 전국 63개 성(省) 지방 마약통제위원회(SBDC), 5개 유관기관(대검찰청, 보건부, 상공부, 재정부, 노동보훈사회부)의 마약류 통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활용법, 관련 기자재 유지 보수 방안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

베트남 현지 실무자 교육

5) 워크숍 개최

▶ 대검찰청 마약과장,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사무소장, 베트남 마약통제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경과에 대한 평가와 수원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중간 · 최종평가 워크숍을 개최함

워크숍 및 기자재 인도식

라. 사업성과 및 의의

1) 베트남 마약통제능력 향상

▶ 다른 국제기구의 자금 및 장비 지원 위주의 전통적인 지원방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최첨단 마약수사정보시스템을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게 접목시킴으로써 베트남의 마약통제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킴

▶ 베트남 정부는 '통합마약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2)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 및 국격 제고 효과 기대

▶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 · 유통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 및 인접지역 국가들의 마약통제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치 · 외교적 중요성과 교역·투자 건설대상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그들의 당면과제인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에 대한 주도권 확보는 물론 국격 제고 및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대함

제7절
2014년도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 참석

1. 제19차 아 · 태지역 약물단속회의(ADEC)

▶ 일본 경찰청(약물총기대책과) 주관으로 2014. 2. 18. ~ 20.간 동경 소재 프린스 호텔에서 26개국, 2개 국제기구의 마약관계관 1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 내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밀수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

▶ 우리 대표단(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5명)은 한국에서의 신종향정물질의 급속 확산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주최측과 양자 회담을 갖고 현재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조 방안을 논의함

2. 제57차 유엔마약위원회(CND) 회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으로 2014. 4. 17. ~ 21. 간 약 120개국, 20개 국제기구, 50개 비정부단체의 관계자 1,400여 명이 참석하여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마약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지침 및 마약통제에 대한 국제조약 이행 사항을 점검함

▶ 우리 대표단(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16명)은 불법 마약 경작의 재유행, 신종 마약의 등장 및 밀수입 기술 발달 등 여러 도전 상황에서도 UNODC가 마약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세계 마약 문제의 추이 등을 규정하고 적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마약 문제 관련 국제 협력 기여 의지를 표명함

3. 국제마약회의(IDEC)

▶ 미국 마약청(DEA) 주관으로 2014. 6. 17 ~ 19.간 이탈리아 로마 카발리에리 호텔에서 140개국 마약관계관 400여 명이 참석하여 불법마약류에 대처하기 위한 단속 강화 및 국제 협력 도모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이탈리아 마약통제국장은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하여 자금 추적 수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 우리측 참석자(수원지검 강력부장 등 2명)는 각국 대표단과 접촉하여 국제 공조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정과제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관련하여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몽골 대표단과 간담회를 주재함

4. 제38차 아 · 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EA)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주관으로 2014. 10. 21. ~ 24. 간 태국 방콕 소재 UN 회의장에서 아태지역의 마약관계관 120여 명이 참석하여 원료물질 및 헤로인, 암페타민 계열의 각성제 밀조 통제 방안, 마약류 남용 방지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역할, 마약류 밀매의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함

▶ 우리측 대표단(대검찰청 마약과장 등 11명)은 각국의 마약관계관들을 접촉하여 아태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향정물질의 증가 및 인터넷을 통한 마약밀매의 심각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마약법집행기관간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본 회의에서 대검찰청 마약과장이 실질적인 의장직을 맡게 되어 본 회의 의제채택, 정치선언 및 행동강령 후속조치 및 보고서 채택등 회의의 실질적인 시작과 종료에 이르기까지 UNODC 주최측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본 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제8절
국제 수사공조 사례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후 첫 범죄인 인수(2003. 5. 22. 서울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 우○○은 2002. 1. 초순경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3kg을 국내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10여회에 걸쳐 중국산 필로폰 수십 kg(약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함

공조사항

▶ 2002. 6. 6.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피의자 범죄인 인도청구

▶ 2003. 3. 20.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피의자 여권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 수사 후 한국 정보기관을 통해 서울지검에 추방형식 인도 제의

▶ 2003. 4. 22. 중국 공안부 관계자에 정식인도 이행 촉구

▶ 2003. 5. 19. 중국 공안당국의 범죄인 인도 수락의사 확인

▶ 2003. 5. 22. 중국 심양시 소재 심양국제공항에서 서울지검 마약수사관 2명이 신병을 인수 받아 귀국하여 5. 23. 구속영장 발부받아 집행

▶ 국내에서 필로폰의 밀제조사범들이 중국으로 도피하여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제조한 후 국내와 제3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을 차단함과 동시에 그 전에는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였는데 이 경우 공식적인 범죄인 인도를 이끌어 냄으로써 마약사범들의 도피처는 더 이상 없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

미국 마약청(DEA) 등 범죄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2003. 6. 29. 서울지검)

사건개요

▶ 2003. 6. 29.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레이브 파티 현장에서 한국인 대학생 등 3명과 미군 9명을 MDMA 밀매 · 투약 혐의로 각 피의자들 검거함

공조사항

▶ 서울지검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내사하여 혐의자들을 확인한 후 2003. 6. 29. 미국 마약청(DEA),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CID), 미공군 방첩수사대(OSI) 등과 공조하여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

▶ 내국인 3명은 국내에서 신병처리하고, 미군 9명은 행정협정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 인계

▶ 향후 DEA, CID, OSI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하기로 협의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려한 아편 밀수사범 공조수사(2003. 12. 5. 인천지검)

사건개요

▶ 2003. 12. 5. 태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을 경유,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던 미국인의 수화물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 9.88kg을 발견하고, 피의자 (79.11.3.생, 미국인) 외 4명을 검거토록 하고, 아편 20kg을 압수토록 공조함

공조사항

▶ 2003. 12. 4. 19:30경 대한항공으로부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는 신고 접수

▶ 가방을 정밀 검색하여 아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과 협조하여 위 가방의 주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미국 애틀란타로 향하는 가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미국 마약청에 상황을 전파하고 공조 요청

▶ 미국 마약청이 애틀란타에서 운반자 3명과 인수책 2명 등 5명을 검거함과 동시에 아편 20kg을 압수하는 개가를 올림

중국 인터폴과 공조하여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04. 8. 30. 수원지검)

사건개요

▶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마약 밀매단과 연계하여 중국 훈춘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경유, 속초항을 통해 필로폰 약 3kg을 밀수, 국내에 유통시킨 필로폰 밀수조직 속칭 '배사장파' 총책 배ㅇㅇ(남, 51세) 등 17명을 적발하여 이중 10명을 구속기소, 2명 불구속, 5명 지명수배함
※ 필로폰 122g 압수

공조사항

▶ 2004. 5.경 필로폰 소지혐의로 구속된 장ㅇㅇ(천안 송악파 부두목)로부터 중국내 조선족 필로폰 공급조직과 밀수 총책 배ㅇㅇ에 대한 정보 입수

▶ 2004. 5.경 필로폰 밀수가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이 아닌 속초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속초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중국 조선족 보따리상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사 착수

▶ 2004. 7. 25. 배ㅇㅇ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연변주 공안구 내 간수소'에 불법체류 혐의로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 입수

▶ 2004. 7. 27. 외교통상부 동북아 2과를 통해 위 정보내용 확인

▶ 2004. 7. 27. 경찰청 외사3과,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인터폴에 배○○의 범행내용, 체포영장 발부사실, 지명수배된 사실 등을 통보하고 추방 요구

▶ 2004. 8. 27. 중국 인터폴(북경대사관, 경찰청 외사3과 경유)로부터 배○○에 대한 추방 계획 통보 받음

▶ 2004. 8. 28. 10:50경 연길발 CA143편으로 국내로 추방

▶ 2004. 8. 28. 14:10경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체포

한 ·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4. 5. 6.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 프○○ ○○(61세, 중국계 미국인)은 2002. 2. 27. 홍콩 소재 첵락콕 공항에서 황○○(중국인)을 교사하여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662g을 국내로 밀수입함

공조사항

▶ 서울중앙지검은 한 · 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법무부를 통해 미국 측에 신병인도를 요청 후 미국 측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인도 통보

▶ 2004. 5. 2. 수사관 2명 출국 후 LA 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신병 인수

캐나다인 관련 국제마약류 밀반입사건(2005. 2.~ 7. 수원지검)

사건개요

▶ 2005. 2. 8.과 같은 달 10. 캐나다에서 밀수된 필로폰 3kg 중 1,900g과 엑스터시 8,832정을 국내 보관책으로부터 각 압수하고, 이 압수물들이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수조직(한국계)이 일본 야쿠자에게 전달할 물건이었음을 확인하여, 캐나다 마약밀수 조직원 밀수총책, 운반책관리, 운반책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캐나다 경찰 및 일본 검찰과 공조 수사함

공조사항

▶ 2005. 6.경 주 홍콩 캐나다 경찰 연락관과 위 조직에 대한 공조수사 위한 회의

▶ 캐나다에서 수사 중인 코카인 밀수사건 수사기록 사본 송부의뢰, 마약밀수 배후인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의 개입여부, 캐나다 거주 마약밀수사범 추방 문제 등 논의

▶ 일본에 검거되어 조사 중에 있던 한국인 마약운반책에 대한 수사기록 사본을 송부받는 등 수사 진행상황 통보 확인

한 · 중 · 괌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6. 8. 23.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다음 같은 달 23.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필로폰 약 530g을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가 검거되어 미수에 그침

공조사항

▶ 세관, 국정원 등 국내 유관기관 및 미국 마약청(DEA)과 공조하여 국내 밀수사범 뿐만 아니라 괌 현지 마약 밀매사범까지 검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사 착수

▶ 2006. 8. 12. 중국 청도발 여객선을 통해 인천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공범 검거를 위하여 통과시킨 다음 같은 달 23.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530g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괌으로 출국하는 운반자로부터 위 필로폰을 수거하여 압수

▶ 운반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검찰 마약수사관, 세관 및 국정원 등 3명이 괌 현지까지 동행토록 한 후 괌 현지 밀매조직과 접선을 위해 대기하던 공범을 미국 마약청(DEA)으로 하여금 검거하게 하고, 국내에 있는 피의자 및 관련 공범 검거

홍콩 · 한국 · 일본 연계 필로폰 밀수사건(2007. 11. 9. 부산지검)

사건개요

▶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 3대 패밀리 중의 하나인 '이나가와카이'의 야쿠자 중간보스와 필로폰 가공전문 기술자가 중국산 필로폰을 홍콩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후 가공 및 재포장 과정을 거쳐 이를 재차 일본으로 밀수출 하기로 공모하여, 2007. 9. 28.경 홍콩발 김해공항행 항공기에 필로폰 약 615g을 소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밀수입 하고, 같은 해 11. 10.경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전량 압수함

공조사항

▶ 세관과 공조하여 일본 '동경세관 국제정보센터'로부터 본건 피의자가 국내로 자주 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피의자들 관련 마약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들의 국내외 움직임을 포착한 후, 서울 소재 호텔에 묵고 있던 피의자들을 추적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채 출국하기 직전 검거

한 · 중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수(2008. 9. 10.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41세, 나이지리아인)는 2002. 5. 1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 사이에 내국인 여성 10명 등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코카인 약 33kg 및 대마 약 40kg을 페루, 태국, 가이아나에서 한국, 네덜란드, 일본, 브라질, 영국으로 판매목적으로 밀수입토록 지시함

공조사항

▶ 2002. 12.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폴에 지명수배 의뢰

▶ 2003. 1. 10. 피의자의 조직원인 공범 우도우 아이케이 등 3명 구속기소

▶ 2003. 2. 27. 프랑스 리옹 소재 인터폴본부 사무총국에서 수배서 발행, 배포

▶ 2003. 9. 25. 서울지검 주최로 피의자 검거하기 위한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회의

▶ 2003. 10. 초 주한 독일대사관으로 피의자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경찰청 인터폴을 통하여 독일 인터폴에 검거 요청

▶ 2003. 10. 21. 인터폴,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피의자 검거

▶ 2004. 2. 16. 인도재판을 심리한 독일 헤센주 지방정부에서 한국과 함께 인도요청을 한 덴마크로 인도 결정하여 신병을 덴마크로 송환

▶ 2004. 5. 21. 덴마크 질란트시 소재 아루후스구치소에서 재판 대기 도중 탈옥, 중국으로 잠입

▶ 2007. 7.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

▶ 2007. 2. 14. 중국 공안당국은 선양시에서 피의자 체포

▶ 2007. 9. 28. 중국 선양시 소재 고급인민법원은 대한민국으로 '인도조건 부합' 판결

▶ 2008. 4. 23.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비준

▶ 2008. 9. 10. 법무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5명이 중국 요녕성 선양시 타오시엔 국제공항에서 신병인수

▶ 2008. 9.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 피의자 구속기소

▶ 200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 무기징역 및 벌금 2억원 선고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10.64톤 압수(2009. 8. 17.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32세, 한국인)는 파키스탄인 2명과 공모, 2009. 2. 13.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고, 2009. 8. 17. 다시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여 중국해운 소속 외항선에 선적하여 밀수출하려 함(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수출 예정이었음)

▶ 2009. 2. 13. 피의자는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20리터들이 용기 250개로 수출용 원단박스로 포장하여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파키스탄 카라치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밀수출

▶ 2009. 4. 피의자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인들을 만나 무수초산 10톤을 3억원에 밀수출할 것을 합의

▶ 2009. 8. 17. 인천항에서 중국해운(주) 소속 외항선 'XIANG TAI'호에 선적하여 이란 반다르 압바스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밀수출 시도

공조 사항

▶ 본건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미국 마약청 한국지부, 파키스탄 마약수사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여 무수초산 밀수출을 차단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 관련 루마니아인 밀수사건(2010. 8. 5.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0. 7. 하순경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원으로부터 5,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운반책으로 포섭되었음

▶ 이후 피의자는 루마니아인 친구 3명과 함께 가나에 입국하여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

▶ 최근 약 1년간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국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었음

▶ 위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조직은 일본으로 직접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일본세관, 경찰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단속되자 이번에는 다시 한국을 경유지로 활용하여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공조사항

▶ 본건 수사과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는 서울세관, 미국 마약청 한국지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여 나이지리아 필로폰 밀수 조직 및 일본 야쿠자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추적 수사함

국제공조수사로 필로폰 1kg 밀수 시도한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 적발(2010. 11. 27. 인천지검)

사건개요

▶ 2010. 11. 26. 미국 마약수사청(DEA)으로부터 싱가포르인 1명이 마약을 소지한 채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첩보 입수함

▶ 2010. 11. 27. 인천국제공항세관 출국장 검사대에서 필로폰 약 1kg을 영양갱 및 비누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려고 한 싱가포르인 2명 및 부산 광장 호텔에 투숙중인 다른 싱가포르인 1명 검거함

▶ 2010. 12. 14. 피고인들 3명 모두 구속 기소함(다른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국제 마약밀수조직을 국내에서 적발한 최초 사례로서, 위 마약 밀수조직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직접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경우 검색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까다로운 검색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활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위 동남아 마약밀수조직은 보안검색 관련 인적 · 물적 장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해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로폰을 밀반입한 후 다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로 필로폰을 밀수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철저히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원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공조사항

▶ 2010. 11. 26. 미국 마약수사청(DEA)으로부터 첩보 입수, 인천국제공항세관과 협조하여 공항 탑승객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 등 신속한 국내, 국제공조수사

▶ 2010. 11. 27. 국내에 들어온 동남아시아 마약밀수조직 조직원 3명 전원 검거

▶ 미국 DEA 및 인터폴과 공조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된 필로폰 공급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실시, 관련 조직원 수사

멕시코發 필로폰 밀수사범 구속(2011. 5. 6.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미국 LA 한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국제 마약거래 등을 일삼는 범죄조직인 LGKK단의 전 조직원이었음

▶ 피의자는 2009. 12. ~ 2010. 5. 사이에 멕시코에서 국제특송화물 혹은 국제통상우편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 총 287.39g을 국내로 밀수함

▶ 그리고 2009. 11. ~ 2010. 1. 국제전화로 국내 하수인 이용, 필로폰 0.7g 1회 매도, 0.7g 1회 교부함

공조사항

▶ 2010. 1. 9. 미국 마약청(DEA)에서 대검 마약과에 공조수사 요청(인터폴 적색수배)

▶ 피의자는 2010. 6. 29. 멕시코에서 검거되었으나 이민국 수용소의 문을 부수고 탈주

▶ 2011. 4. 21. 피의자가 멕시코 경찰에 출석 후 멕시코 이민국에 수용되자, 멕시코 인터폴에 신병인수 요청

▶ 2011. 5. 4. 신병인수단(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관 2명, 국제형사과 직원 1명)이 일본 경찰 협조를 받아 경유지인 일본 내 우리 국적기에서 체포영장 집행

▶ 한국 검찰, 미국 DEA, 인터폴, 멕시코 이민국 등 각국 기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마약밀수를 일삼는 국제마약범죄 사범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 구속

한·브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한국인 마약운반책 이용사범 신병인수(2011. 5. 27.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04. 10. 30.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에서 운반책으로 하여금 프랑스로 코카인 37kg 운반하도록 하여 마약 소지함

▶ 피의자는 2005. 3. 5. 남미 페루에서 운반책으로 하여금 스페인으로 코카인 11.5kg 운반 준비토록 하여 마약 소지함

공조사항

▶ 2005. 8. 5. 인터폴에 적색수배 등재하여 2009. 7. 22. 브라질 경찰이 브라질에서 피의자 검거

▶ 2009. 8. 20.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2011. 2. 10. 범죄인 인도 결정

▶ 2011. 5. 25. 브라질 내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범죄인 인도받아 체포영장 집행

홍콩으로부터 동남아 국제마약밀수조직원의 신병 인수, 구속(2011. 12. 1.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싱가포르 국적)는 다른 피의자 3명(싱가포르 국적으로 2010. 12. 14. 모두 구속)과 공모하여 2010. 11. 27.경 인천국제공항세관 출국장 검사대에서 필로폰 약 1kg을 가방에 넣고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함

▶ 2010. 12. 14. 인터폴에 적색수배 등재함

공조사항

▶ 2011. 2. 10.경 홍콩 정부로부터 피의자가 홍콩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긴급 인도구속 청구 후, 2011. 3. 29.경 홍콩 정부에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 2011. 10. 3.경 홍콩 경찰에서 피의자 체포, 2011.12. 1.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 이륙대기 중인 우리나라 국적기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국내로 호송하여 조사한 후, 같은 달 구속

국제공조수사를 통한 필로폰 544.9g 밀수책 검거(2012. 2. 10.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1. 11. 6.경 필로폰 544.9g이 은닉된 전기프라이팬을 운반책에게 건네주면서 한국으로의 밀반입을 지시하였으나 운반책이 중국 청도 유순공항에서 중국세관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구속됨

공조사항

▶ 2011. 11. 11. 중국세관에서 인천본부(항만)세관에 운반책의 구속사실을 통보하고, 인천본부 세관에서 다시 인천지검에 이를 통보하여 국제공조수사 착수

▶ 2011. 12. 중순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측 조사자료(운반책의 심문기록, 현장 CCTV사진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등 확보

▶ 2012. 1. 10.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 8. 피의자를 내연녀의 집 앞에서 검거하여 구속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3kg 운반 지시한 한국인 마약운반사건 적발(2012. 9. 7. 서울중앙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마약을 운반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운반책으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 3kg을 운반하도록 지시함

공조사항

▶ 2011. 5. 14.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운반책 체포

▶ 2012. 6.경 일본 법무성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 및 재판기록을 확보하여 필로폰 운반을 지시한 피의자의 신원확인과 위치추적 실시

▶ 2012. 8. 23. 피의자 체포 및 구속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3.5kg 밀수 주모자 체포(2013. 6. 14.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운반책 ○○○ 등 3명을 사주하여 2011. 12. 19.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2.1kg을 밀수입하게 함(1차 범행)

▶ 피의자는 1차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등 2명으로 하여금 2012. 3. 10.경 필로폰 약 1.4kg을 밀수입하게 함(2차 범행)

공조사항

▶ 범행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 체포

▶ 2013. 4. 대검 마약과에서는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통해 필리핀 마약청(PDEA) 및 이민청에 피의자 검거 요청

▶ 2013. 5. 28. 필리핀 현지에서 피의자 체포

▶ 2013. 6. 14.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 내 대한항공 KE622호에서 피의자 신병을 인수 받아 체포영장 집행 후 국내 송환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도피 마약 밀수사범 검거, 구속(2014. 3. 6. 평택지청)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0. 11. ~ 2011. 3.경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300g 밀수하고, 필로폰 20g 매도 및 필로폰 30g 매매 알선함

공조사항

▶ 2011. 6. 20.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 2014. 1. 16. 중국 당국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신병 확보

▶ 2014. 3. 6. 중국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신병 인수받아 체포

▶ 2014. 3. 8. 피의자 구속

베트남으로 도피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 강제송환(2014. 12. 30. 인천지검)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11. 10. ~ 2012. 1.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국제특송 화물편으로 필로폰 12g, 엑스터시 20정, 케타민 50정을 국내로 밀수입함

공조사항

▶ 2012. 8. 21.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 2012. 12. 5. 피의자 인터폴 적색수배

▶ 2013. 1. 30. 외교부에서 피의자 여권발급 등 제한 및 여권효력 상실 조치

▶ 2014. 3.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를 통해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 수사 진행

▶ 2014. 12. 9. 베트남 하노이 미딩에서 피의자 검거

▶ 2014. 12. 30. 강제추방 형식으로 국내 송환 후, 피의자 구속

발행인

대검찰청 강력부장 변찬우

기획

대검찰청 마약과장 박재억

편집

대검찰청 마약과 도춘성 김용권
박기영 김현수
이병록 임호성
박재열 정영도
박상구 안민석
윤금현 한태환
홍승표 박희조

2014 **마약류 범죄백서**

2015년 8월 7일 인쇄

2015년 8월 7일 발행

발행 : 대검찰청 ☎ 02)3480–2292~5

인쇄 : 남일문화주식회사 ☎ 02)720–1511~3